

무등산 광주권역 습지 인근에 야영장 생긴다

제4수원지 충민사 아래 화암야영장 5만㎡ 조성 3년 내 완공...환경부 '공원 계획' 변경 절차 남아

청동오리·삼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동물이 서식하는 무등산 국립공원 내 최대 습지인 '평두메 습지' 인근에 야영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 야영장은 지난 9월 해제된 상수원보호구역인 제4수원지 보호구역 내에 조성된다는 점에서 41년 만의 개발계획이다.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달 25일 '무등산국립공원 화암야영장 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변경 용역' 입찰 공고를 올려 지난 6일 용역 업체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야영지가 조성되는 위치는 광주시 북구 화암동 291번지 일대로, 무등산 충민사 아래쪽 평두메 습지 바로 옆에 있다.

'화암야영장'은 5만㎡(1만5000여평) 규모로 계

획됐다.

업체는 지난 15일 용역에 착수해 5개월 동안 화암야영장 기본계획과 야영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 검토서 등을 작성한다.

야영장 계획 부지는 제4수원지 상수원 보호구역에 포함됐던 곳으로 음식점, 카페, 숙박시설 등의 허가가 나지 않는 곳이었지만, 지난 9월 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개발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국립공원내의 부지라는 점에서 '공원 계획'에 야영장 건설을 포함하도록 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립공원공단이 용역업체의 보고서를 받아 '공원계획 변경안'을 환경부에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환경부장관의 결정·고시를 통해 '공원 계획' 변경

이 진행된다.

화암야영장이 조성되면 광주도심권 근교의 첫 무등산국립공원 야영장이 된다는 것이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의 설명이다.

지난 2021년 7월 '도원야영장' (화순군 이서면)이 무등산국립공원 내에 조성돼 운영되고 있지만, 무등산 동부권이라는 점에서 광주 도심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 분석이다.

광주 도심에서 도원야영지까지는 자동차로 한시간 가량이 걸리는 반면, 화암야영장은 도심에서 차량으로 20분 가량이 소요된다.

화암야영장은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직접 운영할 예정이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등에 따라 야영장 부지를 물색하던 중, 제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돼 이곳을 선택하게 됐다"며 "대략 2~3년 안에 야영장이 완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암마을 주민들은 대체로 야영장 조성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화암야영장 계획 수립에 참여한 마을주민회 관계자는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국립공원인 무등산에 놀러와도 볼거리가 없고 쉬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게다가 지난 41년간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마을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봤다"며 "야영장과 근처 평두메 습지를 연결하는 데크를 설치해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면 주변 마을 경제도 살아날 것이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야영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지가 산 중턱에 있어 환경오염이 우려되기도 한다. 산 중턱은 산 밑보다 오페수 시설을 설치하기 어렵고, 야영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에도 취약하다"며 "용역 중간 보고서가 나오면 그때 확인한 뒤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천흥희 기자 strong@kwangju.co.kr

10~25cm

광주·전남 22~24일 폭설

광주·전남지역에 22일 새벽부터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까지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2일 새벽부터 24일 오전까지 광주와 전남지역에 시간당 5cm 내외의 매우 강한 눈이 오겠다"고 21일 밝혔다.

기상청은 광주와 전남의 예상 적설량을 10~25cm 수준으로 전망했다. 광주와 전남 서부의 경우 많게는 30cm까지도 눈이 올 것이라는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이에 기상청은 22일 새벽 0시를 기점으로 광주와 전남 일부지역(나주, 담양, 곡성, 구례, 장성, 화순, 강진, 해남, 완도, 목포, 신안 등)에 대설 예비특보를 발효했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매우 많은 눈이 예상돼 비닐하우스나 약한 구조물 붕괴 등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



'새알 동동' 동지팥죽 만들어요 광주시 북구 중흥하나어린이집 원생들이 동지를 하루 앞둔 21일 동지팥죽에 넣을 새알을 만들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광양시 장내 기생충 감염률 높다

섬진강·낙동강 등 유행지역 주민 진단... 12.9% 나와

광양시 주민들의 장내 기생충 감염률이 12.9%로 조사대상 시군 중 가장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전국 36개 시·군의 장내 기생충 평균 감염률도 5%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청은 21일 '2022년도 장내 기생충 발생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조사에서 섬진강, 영산강, 낙동강, 금강 등 장내 기생충 질환 유행지역의 36개

시군 주민 2만 8918명을 대상으로 간흡충 등 11종의 장내 기생충을 진단했다.

지역별로는 섬진강 유역 주민들의 장내 기생충 감염률이 전년보다 0.9%p 증가한 6.8%로 가장 높았다.

낙동강 유역 주민들의 장내 기생충 감염률은 5.4%로 두번째로 높았고 영산강 유역(3.0%), 한강 유역(2.9%), 금강 유역(2.3%) 순이었다.

조사 대상 36개 시·군의 장내 기생충 평균 감염률은 5.3%였다. 광양시는 12.9%로 가장 높은 감염률을 보였으며, 안동시(10.1%), 순천시(9.8%), 하동군(8.7%) 순이었다.

광양시 유행지역 주민의 감염률은 2019년에 4.3%에 이어 2020년 6.2%, 2021년 7.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순천시와 화순군은 1년만에 감염률이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순천시 장내 기생충 유행지역 주민의 감염률은 2021년 2.4%에서 올해 9.8%로 올랐고, 화순군도 2021년 3.1%에서 올해 8.4%로 증가했다.

/천흥희 기자 strong@kwangju.co.kr

끊이지 않는 '학내 갑질' 근절 방안은

도교육청 실태조사...TF 구성해 매뉴얼 제작키로

최근 전남지역 일선학교에서 갑질문제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교육청이 실태조사와 함께 '갑질 근절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전남도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끊이지 않는 갑질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갑질사례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매뉴얼)을 제작해 일선 학교와 교육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실제 광양과 장흥·나주·여수지역 일선 학교에서 교장과 교감에 의한 폭언·협박 등이 잇따라 해당 교육지원청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광양 A초등학교 교장은 지난 3월부터 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교사들에게 폭언과 강압적 분위기 조성, 인사조치 협박을 계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교장은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아 교사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장흥 B중학교의 상급자는 교육 관련 서류를

교사가 있는 앞에서 찢어버리고 매일 출근확인, 부당한 요구 등을 지속해 교육지원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나주의 C중학교에서도 교감의 폭언으로 인해 교사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갑질문제가 불거졌으며 여수의 D초등학교는 폭언을 한 상급자가 해임 조치됐다.

도 교육청은 갑질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 다양한 직종과 세대로 이뤄진 학교 구성원 간의 인식 차가 크고 권위주의적 태도를 관행으로 여기는 문화가 잔존하기 때문으로 파악했다.

도 교육청은 내년 상반기 중에 교직원단체를 포함한 직종별 교직원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관별 갑질 근절 대책 수립과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갑질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주기적 실태 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교육공동체 파괴하는 '교원평가' 폐지해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1일 자료를 내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참여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고, 평가 과정에서 인격모독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교육공동체를 파괴하는 교원평가 폐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초·중·고교, 특수학교의 교원평가 참여율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참여율은 44.52%

였다.

또 중학생 학부모는 19.01%, 고등학생 학부모는 11.14%로 학교 급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학생 참여율의 경우 2018년 43.41%였던 것이 2019년 35.41%로 낮아졌고, 올해는 34.30%까지 떨어졌다.

교원 참여율은 2018년·2019년 모두 절반을 넘었지만, 지난해부터 교원의 평가 부담, 인권침해에 따른 사기 저하 등을 이유로 동료 교원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2023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모집

열정, 꿈, 진리로 증명한다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 열	학 과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인 문 사 회	신 학 과		23
	한국어교육학과		2
	복지상담융합학부		10
사 범	유아교육과		3
예 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6
총 계			44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 집 인 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00
		성경연구학과(Th.M.)	0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Ph.D.)	0
		목회학과(D.Min.)	0
		유아교육학과(D.Ed.)	0
		코칭심리학과(D.Psy.)	0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0
		신학과(Th.M.)	0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0
		상담심리치료학과(M.A.)	00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0
		코칭심리학과(M.Psy.)	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M.A.)	0
		재활심리치료학과(M.A.)	0
		사회복지학과(M.S.W.)	00
국제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0
		한국어교육학과(M.Ed.)	0
		휴먼서비스교육학과(M.Ed.)	0

사랑과 감사의 68년
1954 ~ 2022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3. 1. 25(수) ~ 2. 3(금)
· 전 형 일: 2023. 2. 6(월)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